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4년도에 걸친 종단 변화 검증*

이선영** · 송주연***

초 록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3~6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양상을 4년에 걸쳐 관찰하고자 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분석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자아개념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는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통해 진로의식의 초기값과 발달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관계에서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독립적인 예측 경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부모의 지지와 자녀의 자아개념과 이후 이들의 발달양상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후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진로의식 성숙도, 부모 학업지지, 부모 정서지지, 자아개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교육혁신본부

***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교신저자, sjy1021@korea.ac.kr

I. 서 론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원하는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정도를 개인의 진로의식 성숙도(career maturity)라고 한다(Crites, 1978; Super, 1990).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직업세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 세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WEF, 2016).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에게는 미래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진로성숙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진로발달이론(Super, 1957) 이론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기는 진로의식 성숙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는 시기이기에 다양한 진로 탐색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치열한 입시 사회에서 상위학교로의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업 성취의 향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진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성숙한 진로의식 성숙도를 지니게 하고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미래의 직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을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변인으로 상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선애, 노혁, 2008; Gottfredson, 1981). 즉, 학습자의 개인적인 흥미와 적성들을 진로의식 성숙의 선행요인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러한 환경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Bong, 2008). 이와 같은 현상을 숙지할 때 학습자가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 개인의 요인 뿐 만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Ferry, Fouad & Smith, 2000).

환경적 요인으로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는 바로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초기부터 특정한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는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이상희, 2012).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학습자가 지각하는 환경적 요인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를 단일한 구인으로 상정하여 탐색하여 왔다(김수리, 이재창, 2007; 우영진, 홍혜영, 2011; 이지연, 2013).

그러나 사회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각의 기능을 구체화·세분화 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부모의 지지의 종류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따라서 부모의 지지가 차별적으로 진로의식 성숙도를 예측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 따라 이들 구인의 예측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Patrick, Ryan & Kaplan, 2007; Song, Bong, Lee & Kim,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 정서적 지지로 세분화하여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이들 구인의 예측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단일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탐색하여 왔다(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그러나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을 예측하는 지지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며, 그 예측력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의 선행연구에서 종단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 궤적을 밝힌바 있으나 진로성숙의 발달 초기인 초등학생 시기부터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신효정, 이문희, 2011;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용택, 2017; 최수미, 2009).

일부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부모의 애착과 진로의식 성숙도와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기도 하였으나 부모의 지지를 단일한 구인으로 상정하거나(안혜진, 정미경, 2015), 사회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내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허균, 2012).

개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로의식 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개인의 자아개념이다.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정옥분, 2004), 이와 같은 인식과정에서 개인의 경험과 환경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역동적으로 작용한다(Skaalvik, 1997). 이처럼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인 자아개념은 개인의 다양한 양상을 토대로 형성되는 다면적 특성으로 정의되고 있다(Shavelson, 1982). 그러

므로 한 개인은 부모의 학문적,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적성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지가 진로의식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개인의 자아개념은 진로의식의 형성에 중요성을 지니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와 개인요인, 진로의식 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 정서적 지지의 독립적인 구인으로 구분하고 각 구인의 예측력을 통한 발달 궤적을 고찰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진로의식 성숙과 같은 개인의 발달은 장기적으로 변화하며 형성되기 때문에 종단적 접근으로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욱 연구문제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Singer & Willet,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하여 검증함과 동시에 이들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함과 동시의 이들 변인 간 예측관계의 변화 양상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 예측관계를 먼저 검증한 후 이들 변인 간 예측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부턴 이후 4년 동안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도는 어떠한 발달양상을 보일 것인가?

둘째,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각각 다르게 예측할 것인가?

셋째,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매개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

진로의식 성숙은 개인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준비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er, 1990). 진로의식 성숙의 개념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Crites(1978)는 진로의식 성숙을 진로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대처 능력의 개념으로 정의한 반면, Super(1990)는 진로성숙을 직업 선택을 위한 발달과업에 따른 준비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진로의식 성숙의 개념은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1951)에 의하여 발달적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진로와 직업 선택의 결정은 특정 시기에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달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의사 결정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인식과 의사 결정의 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동기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과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이와 같은 주장에 맞물려 최근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uepr와 그의 동료들(1996)은 학습자가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관한 인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동기 초기와 같은 이른 발달의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능력과 흥미, 가치관을 비롯한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진로성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따라서 개인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인 가치의 영향 안에서 합리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소연희, 2011).

개인의 진로성숙을 예측하는 중요한 사회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 변인이 있다(소연희, 2011). 부모는 학습자의 동기와 학업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존재이다(Bong, 2008). 부모들의 긍정적이며 적절한 개입은 개인의 직업 성숙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Young & Friesen, 1992), 학습자의 동기를 매개로 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양난미, 이은경, 2008).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며(Guay, Senecal, Gauthier & Femet, 200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속될수록 진로성숙의 발달이 지연된다고 하였다(박효희, 신정민, 신진아, 2006). Lent와 그의 동료들(2002)은 한 개인이 직업의식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능력, 성격과 같은 개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학자 역시 이와 같은 성장발달 과정에서 특히 자녀의 중학교 입학 시기 이전에 형성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선택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Roe & Lunneborg, 1990).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모델로서 직업적 동기를 부여하고 특정한 직업이 가지는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구체적인 행동과 언어와 같은 의식적 표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직업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관계 형성, 상호작용, 대화소통은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영진, 홍혜영, 2011).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다양한 측면의 지지를 지각하게 되면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자율성과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서양의 학습자에게 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는 진로의식 성숙에 있어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선미, 심인선,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양상을 반복측정을 통한 종단 관찰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부모-자녀 관계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의식의 발달과정에 있어 이와 같은 관계의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구인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부모 지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자녀의 동기와 학업 성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지지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amre & Pianta, 2005; Johnson, Johnson & Anderson, 1983).

청소년기 부모의 지지는 대표적으로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눌 수 있다(Song et al., 2015). 부모의 학업적 지지란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여하여 도움을 주는 부모의 관여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한다. 반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영역에서 자녀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업에 있어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춰줌으로써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업에 집중하여 높은 성취를 달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Ahmed et al., 2010; Song et al., 2015). 반면 학업

적 지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동기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탐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보다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전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학업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하지만 불안을 일으키고 성취를 예측하지 못 하였다(Song et al., 2015). 하지만 아직까지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구별하는 연구는 부족하여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진로의식 성숙도에도 구별되는 영향을 보일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2.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 이 고려될 수 있다. 진로의식의 성장이 개인의 자아개념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Super (1957, 1990)의 주장에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개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다양한 요인들(흥미, 가치관, 가치 등)과 자아개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개념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아우르는 주관적인 자각이므로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중요한 내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개인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개인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Isaacson & Brown, 2000). 더욱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 탐색과 활동 등에서 구체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나타낸다(Dillard, 1976).

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Heller, 2002). 개인의 자아개념은 발달 초기에 형성되지만 고정적이지 않으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 혹은 저하 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깊이 있게 이

해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설정하는 진로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안혜진, 정미경, 2015; Super et al., 1996). 김현옥(1989)는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할수록 진로관련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더욱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숙(1997) 역시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의 성숙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학습자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지니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Holland, 1982), 연구 대상에 따라 상관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Lawrence & Brown, 1976). 또한 학습자의 자아와 관련된 변인은 실질적으로 진로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여 두 변인간 예측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현림, 주문자, 2007). 따라서 개인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따른 진로성숙 의식의 발달 궤적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한 시기의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주로 검증하였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진로의식 성숙의 변화추이와 함께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김종운, 김지현, 2008; 정혜정, 최인실; 2004). 자아개념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서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발달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향상되거나 저하될 수 있으며 진로의식역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향방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인들 간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와 변화추이 검증

부모의 지지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하여 그 예측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박효희, 성태제, 2008; 허균, 2013). 개인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지지받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에 공감한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McCormick & Kennedy, 1994). 초등학교 4학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예측하는 관계를 검증한 장영은(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의식 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이 두 변인 간을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처럼 학습자 개인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는 진로의식 성숙을 직접 유의하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진로의식 성숙을 예측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학업적,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고(Laible, Carlo & Roesch, 2004),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균형을 맞추는 직업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인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부모의 학업적 지지가 보이는 양면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의 학업적지지 또한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자아개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검증될 필요가 있다(Song et al., 2015).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의 예측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할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개념을 부모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로 상정하되 단일한 시점이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아닌 4번의 반복측정을 통한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의식 성숙의 개념에는 개인의 발달 궤적을 포함하는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진로의식 성숙은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지닌다(신효정, 이문희, 2011). Hartung 과 그의 동료들 역시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는 진로의식에 대해 역설하였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이뿐만 아니라 진로의식 성숙을 자아의 이해,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정의한 국내 연구도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적 측면을 인정하였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따라서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적 관점에서는 자기이해와 이해 수준에 따른 직업 선택의 양상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중요하게 다룬다. 허균(2012)과 박효희, 성태제(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의식 성숙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학습자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진로 탐색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Tuckman(1974)이 아동기 진로개발 교육이론을 토대로 직업에 대한 이해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진로발달의 성장기인 중학교 시기의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Super, 1990). 청소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이상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중학교 이전 학습자인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관찰하였다는 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학습자들의 발달 속도는 더욱 빨라져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학습자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같은 동기적 요인, 부모와 교사들의 영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의식 성숙은 이루어 질 수 있다(Super et al., 1996). 이전 연구를 보면 청소년기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인 전환기에 학습자의 동기는 하락하고(Eccles et al., 1993)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Marsh & Hau, 2003).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정체감에 혼란(Marcia, 1980)을 경험하는 동시에 학문적 과업을 강조하는 학업 환경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Urdan & Schoenfelder, 2006).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 보이는 이러한 엇갈리는 발달양상을 고려할 때, 전환기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가 4년에 걸쳐 나타내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화와 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 궤적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의 개인 내적인 변화와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이의 영향력 역시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eredith & Tisak, 1990). 즉,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면 개인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존재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정서적 지지로 구분할 때 진로성숙의 예측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Hamre & Pianta, 2005; Johnson, Johnson & Anderson, 1983). 또한 개인의 자아개념은 부모의 관여와 지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고 환경을 이해하며 미래의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소연희, 2011; Super et al., 1996).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학습자의 발달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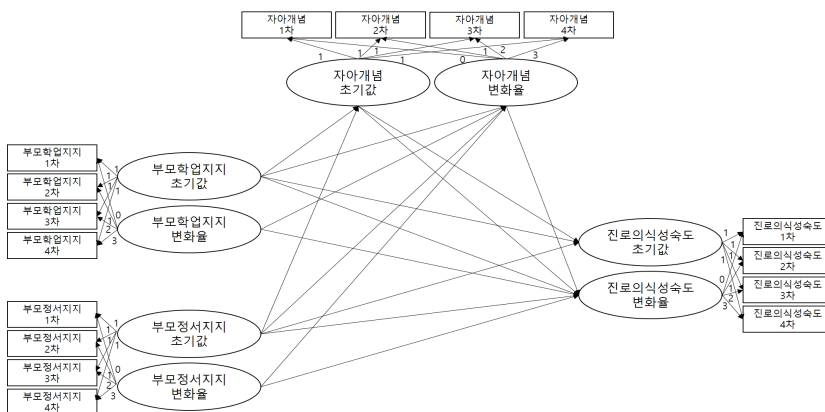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한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3차년도(2012년)~6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종단연구는 층화2단계집락추출 방식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및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4개의 표본 패널(panel)을 구성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4년 간 부모의 지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자아개념, 진로인식 성숙도의 변화와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의 경우, 먼저 108개 초등학교가 조사대상 학교로 추출되었으며, 다음으로 이들 학교에 대하여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목표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도에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059명이었다. 6차년도 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응답을 완료한 학생 수는 총 3,462명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의 68.4%이다. 6차년도 신규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4,543명(여학생 1,747명, 남학생 1,840명, 미기입자 926명; 1차년도 4,310명, 2차년도 3,662명, 3차년도 3,563명; 4차년도 3,667명)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3차년도(2012년)에서 6차년도(2015년도)에 걸친 4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 중 학생 설문지의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인식 성숙도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응답 중 학부모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이 2차부터 자료획득이 가능한 관계로 학습자들의 학문적, 정서적 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기인 3차 자료, 즉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의 초기 시작점으로 선정하였다.

1) 부모의 학업적 지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모님께서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신다.'와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부모의 학업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는 것이다. 3~6차년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7~.78로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 역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따라서 높은 점수는 학생들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6차년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91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학생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예.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모든 차년도에서 Cronbach's alpha .94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4) 진로의식 성숙도

진로의식 성숙도는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정도로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예.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와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3~6차년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94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값과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여 연구대상의 특징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구인에 대한 발달 양상을 확인하고자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여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여 구인 간 종단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는데, 이 방법은 여타의 결측치 처리 방법들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한 추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Graham, 2009). 모델 검증을 위해서는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를 참고하였다. RMSEA는 .10 이하,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변수별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의 평균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전체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은 .22에서 .98 사이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02에서 .56 사이이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의 정상분포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1
변수별 기술통계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모 학업적 지지 1차	1	5	3.96	.87	-.73	.27
부모 학업적 지지 2차	1	5	3.84	.87	-.58	.12
부모 학업적 지지 3차	1	5	3.73	.85	-.40	.02
부모 학업적 지지 4차	1	5	3.69	.84	-.39	.10
부모 정서적 지지 1차	1	5	4.15	.88	-.98	.56
부모 정서적 지지 2차	1	5	4.06	.88	-.80	.27
부모 정서적 지지 3차	1	5	4.04	.85	-.69	.19
부모 정서적 지지 4차	1	5	4.06	.83	-.74	.43
자아개념 1차	1	5	3.93	.86	-.63	.21
자아개념 2차	1	5	3.84	.85	-.48	.03
자아개념 3차	1	5	3.81	.81	-.31	-.14
자아개념 4차	1	5	3.83	.80	-.27	-.26
진로의식 성숙도 1차	1	5	4.22	.71	-.78	.35
진로의식 성숙도 2차	1	5	4.01	.76	-.42	-.26
진로의식 성숙도 3차	1	5	3.89	.74	-.22	-.31
진로의식 성숙도 4차	1	5	3.91	.74	-.29	-.12

2. 변수별 분석 모형

1) 부모의 학업적 지지

먼저 부모의 학업적 지지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chi^2(8, N=4,543)=530.70$, $p<.001$ (CFI=.870, TLI=.837, RMSEA=.120). 이에 비하여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chi^2(5, N=4,543)=45.43$,

$p < .001$ (CFI=.980, TLI=.990, RMSEA=.042).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3.94이었으며 분산은 .41이었다. 변화율의 평균은 -.09였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부모의 학업적 지지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조사 시기에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가 부모의 학업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의 학업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 중 하나이다.

표 2

부모의 학업적 지지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530.70/8	.870	.837	.120	3.80*	.36*			
선형변화	45.43/5	.980	.990	.042	3.94*	.41*	-.09*	.03*	-.04*

* $p < .001$.

2)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모의 정서적 지지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정서적 지지의 무변화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chi^2(8, N=4,543) = 242.19$, $p < .001$ (CFI=.947, TLI=.933, RMSEA=.080). 그러나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chi^2(5, N=4,543) = 88.17$, $p < .001$ (CFI=.981, TLI=.962, RMSEA=.061).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4.12이었으며 분산은 .45였다. 변화율의 평균은 -.03이었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5$ 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인데,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이다.

표 3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242.19/8	.947	.933	.080	4.07 [*]	.38 [*]			
선형변화	88.17/5	.981	.962	.061	4.12 [*]	.45 [*]	-.03 [*]	.03 [*]	-.05 [*]

* $p < .001$.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의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 역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chi^2(8, N=4,543)=256.37$, $p < .001$ (CFI=.939, TLI=.924, RMSEA=.083). 하지만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다 더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chi^2(5, N=4,543)=83.12$, $p < .001$ (CFI=.981, TLI=.962, RMSEA=.059).

자아개념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3.90이었으며 분산은 .40이었다. 변화율의 평균은 $-.02$ 이었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자아개념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자아개념이 높았다면 이후 자아개념의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 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 중 하나이다.

표 4

자아개념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256.37/8	.939	.924	.083	3.85*	.34*			
선형변화	83.12/5	.981	.962	.059	3.90*	.40*	-.02*	.03*	-.04*

* $p < .001$.

4) 진로의식 성숙도

진로의식 성숙도의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chi^2(8, N=4,543) = 1166.11, p < .001$ (CFI=.706, TLI=.633, RMSEA=.179). 이에 비하여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chi^2(5, N=4,543) = 151.87, p < .001$ (CFI=.952, TLI=.904, RMSEA=.080).

진로의식 성숙도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4.20이었으며 분산은 .29였다. 변화율의 평균은 -.14였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았다면 이후 진로의식 성숙도가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이다.

표 5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1166.11/8	.706	.633	.179	4.01*	.26*			
선형변화	151.87/5	.952	.904	.080	4.20*	.29*	-.14*	.03*	-.04*

* $p < .001$.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 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 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자아개념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CFI와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서는 모형의 우수성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χ^2 값과 AIC를 근거로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 이 73.37이고 ΔAIC 가 60.77임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 결과

	χ^2	df	CFI	TLI	RMSEA	AIC
부분매개	428.128	73	.989	.979	.033	586.722
완전매개	501.494	79	.987	.977	.034	647.494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은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결과모형을 그림 2로 제시하였다. 부모의 학업적 지지($\beta = .136, p < .001$)와 정서적 지지($\beta = .562, p < .001$)의 초기값은 모두 자아개념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자아개념 초기값에 대한 부모

지지의 예측력 측면에서는 학업적 지지 초기값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보다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CI=5.667).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 모두 자아개념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학업적 지지 변화율($\beta=.133$, $p<.05$)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 변화율($\beta=.404$, $p<.001$)은 모두 자아개념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예측력 측면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변화율의 예측력이 학업적 지지의 예측력보다 높았다(CI=2.556).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습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업적, 정서적 지지를 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역할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인식에 대한 변화율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의 변화율 역시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정적($\beta=.203$, $p<.001$)으로 변화율을 부정적($\beta=-.111$, $p<.05$)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변화율이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예측하는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213$, $p<.001$).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로부터 학업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당시 높은 진로의식 성숙도를 보이지만 이후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변화율이 빠를수록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변화율 또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beta=.635$, $p<.001$)과 변화율($\beta=.130$, $p<.01$)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며, 자아개념의 변화율 역시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4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자아개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높은 진로의식 성숙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후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개념의 감소율이 빠를수록 진로의식 성숙도 역시 빠르게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4년도에 걸친 종단 변화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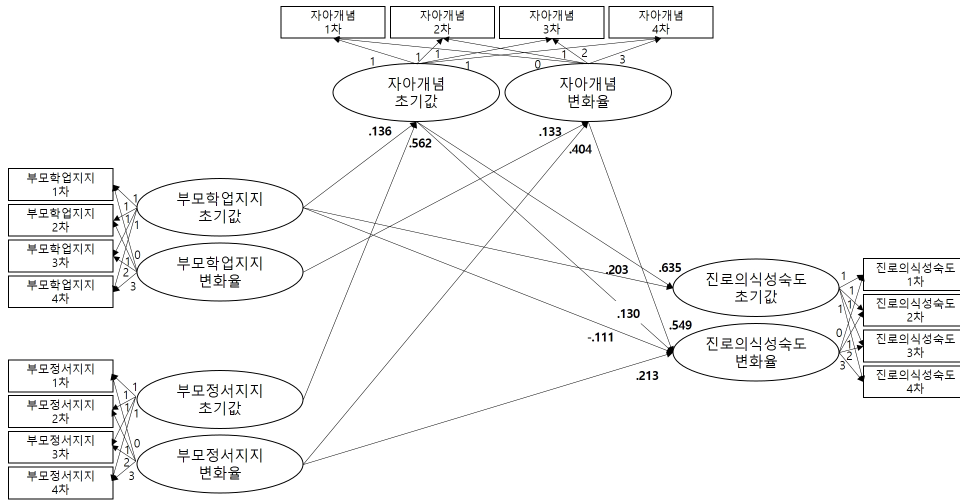


그림 2. 결과모형

표 7

연구모형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 경로계수

		β	<i>B</i>	<i>S.E.</i>	<i>P</i>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136	.135	.038	.00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002	.000	.016	.979
부모 학업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133	.140	.062	.024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562	.534	.036	.000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042	-.011	.015	.472
부모 정서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404	.427	.063	.00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203	.169	.029	.00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111	-.030	.013	.025
부모 학업적 지지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060	-.062	.055	.259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026	-.020	.032	.525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069	.018	.015	.223
부모 정서적 지지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13	.220	.061	.000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635	.530	.026	.000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130	.035	.012	.003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549	.537	.047	.000

2) 매개효과 검증

간접경로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간 자아개념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제외한 모든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Sobel 검증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3.5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25*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11.99***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86**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00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71
부모 학업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22*
부모 정서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5.83***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년간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궤적을 관찰하였으며 이들 간의 종단적인 관계 역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들은 선형변화모형에 더욱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의 초기값과 변화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변수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와 종단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1.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4년 간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도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은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에 학습자들의 동기는 저하되고 자아개념의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발달적으로 동기와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안혜진, 정미경, 2015; Eccles et al., 1993).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인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역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감소한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안혜진, 정미경, 2015).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구별하여 측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인식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에 비하여 더욱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양상에 대해서는 결과 해석과 논의에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 역시 다른 변인과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의식 성숙도도 함께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던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박효희, 성태제, 2008; 허균, 2012).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년부터 3년간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을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발달을 살펴보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양상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12세에서 17세까지 학습자의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12세에서 15세의 연령대에 비하여 15세에서 17세까지의 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더욱 성숙하기는 하지만 진로에 대한 확실성은 15세 즈음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진로의식의 하위 영역과 발달 시기에 따라 발달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기만 포함하

여 자아개념의 발달을 살펴보았을 때는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발달양상을 보였지만 고등학교 시기까지 포함하면 U자형 발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송수지, 남궁지영, 김정민, 2012). 진로성숙도가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진로의식 성숙도 역시 발달의 기간을 확장하여 본다면 U자형 발달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김현옥, 1989; 이영숙, 1997).

2. 진로의식 성숙도의 차별적 예측변인으로서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역할 검증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차별적인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먼저,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부모 지지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경우, 초기값이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경우, 변화율이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습자들의 진로의식 성숙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던 변수별 분석 모형 결과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업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일수록 시간에 흐름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도의 저하의 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 모두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던 변수별 분석 모형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감소 폭이 커질수록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 폭 역시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지지를 강하게 지각하는 학습자들은 직업에 대하여 가지는 직업소명의식, 공동체 개념, 사회인으로서의 발전 통로와 같은 진로의식 성숙에 있어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김현미, 임은미, 2012).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는 반

면 스트레스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처럼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높게 예측함과 동시에 이후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Song et al., 2015). 이와 같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구별되는 역할에 대한 축적된 경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중학교로 진학 한 이후에 지각하는 학업적 지지의 변화율보다는 학습자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수준이 추후의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관여와 진로의식 성숙도와의 정적인 예측관계를 밝혔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소연희, 2011). 따라서 학습자들의 진로의식의 성숙의 시작시기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면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학습자의 진로의식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3.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적 역할

연구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각각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부모의 지지가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는 결과(장영은, 2010; Laible, Carlo & Roesch, 2004)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자아개념의 변화에도 학습자가 지각하는 지지의 변화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발달적 측면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지지의 설명변량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개인의 자아개념의 형성과 변화에 모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자아개념의 직접적 예측력은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가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고려할 때, 예상대로 부모의 지지가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을 설명하는 있어서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업적 지지에 비하여 자아개념을 더 크게 예측하였다. 이를 볼 때,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자아개념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적 측면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서적 측면의 지지는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자의 발달 양상에 따른 진로의식의 성숙도 변화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학습자의 연령대는 일부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진입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낮은 연령의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허균, 2013). 둘째,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학습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수준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환경의 차이 정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단 자료라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학교 간 특성 차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변인으로서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정서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인의 차별적인 예측 경로를 발견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낸 바와 같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는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에 다른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변인을 횡단적인 측면에서 탐색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발달 양상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 추이를 밝혀내었다. 따라서 종단 자료를 근거로 학습자의 발달 변화에 따른 진로의식의 성숙도의 발달 추이를 검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적 특성이 모두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던 부분이므로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의 진로 설정과 진로 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학습자의 바람직한 진로 설정은 물론 진로의식 형성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하는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진로설정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진로성숙도의 형성과 발전, 지속에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높은 학문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학문적 지지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단기적이며 가시적으로 자녀의 진로성숙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학습자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을 촉진시킴으로 진로의식 성숙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직업 체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의견에 공감하여 주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학업적 측면의 단기적인 개입만으로도 진로의식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직업과 관련한 체험과 활동에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의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부모 의식의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제도 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지역,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과 제도 및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학교진로상담** (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선미, 심인선 (2003).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비교교육연구**, 6(1), 1-19.
- 김선애, 노혁 (2008). 청소년의 직업성숙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0(3), 27-50.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종운, 김지현 (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1(2), 127-143.
- 김현미, 임은미 (2012). 부모-자녀관계 및 변화가 청소년의 직업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4), 57-73.
- 김현욱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박효희, 성태제 (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박효희, 신정민, 신진아 (2006).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71-889.
- 소연희 (2011).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0(4), 203-220.
- 송수지, 남궁지영, 김정민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 분석. **인간발달연구**, 19(1), 215-238.
- 신호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 안혜진, 정미경 (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279-303.
-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 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우영진, 홍혜영 (2011).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3(1), 31-53.
- 이영숙 (1997).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 진로성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웅택 (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0, 91-112.
- 이지연 (2012). 진로교육과 연계된 입학사정관의 자격 및 역량. **진로교육연구**, 25(3), 95-115.
-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이현립, 주문자 (2007).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81-191.
- 장영은 (201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애착과 자아개념이 미치는 효과: 성차,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관하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6), 71-82.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혜정, 최인실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73-791.
-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상담: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 최수미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

- 학연구**, 10(4), 2257-2271.
- 허균 (201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진로성숙도의 변화궤적과 성별, 자아존중감 및 부모애착 시간효과의 구조관계. **직업교육연구**, 31(2), 193-209.
- 허균 (2013). 초기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애착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연구. **직업교육연구**, 32(1), 107-118.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한국 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 Ahmed, W., Minnaert, A., van der Werf, G., & Kuyper, H. (2010).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early adolescents' achievement: The mediational roles of motivational beliefs and emo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36-46.
- Bong, M. (2008).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lassroom goal structures on motivation, help-seeking avoidance, and cheating.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6(2), 191-217.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CTB/McGraw-Hill.
- Cronbach, L. J. (1990). *Essentials of psychological testing* (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llard, J. M. (1976).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s of suburban and urban middle-and urban lower-class pre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311-320.
- Eccles, J. S. (1994).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4), 585-609.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c Iver, D.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2), 90-101.
- Eccles, J. S., &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09-132.
-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 (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48-364.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llob, H. F., & Reichardt, C. S. (1987). Taking account of time lags in causal models. *Child development*, 58, 80-92.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uay, F., Sené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 Hamre, B. K., & Pianta, R. C. (2005). Can instructional and emotional support in the first-grade classroom make a difference for children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 development*, 76(5), 949-967.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385-41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saacson, L. A., & Brown, D. (1997).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6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Johnson, D. W., Johnson, R., & Anderson, D. (1983). Social interdependence and

- classroom climate. *The Journal of Psychology*, 114(1), 135-142.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awrence, W., & Brown, D. (1976).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 43-5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and development* (4th ed., pp.255-311). San Francisco: Jossey-Bass.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arsh, H. W., & Hau, K. T. (2003).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 cross-cultural (26-country) test of the negative effects of academically selective schools. *American psychologist*, 58(5), 364-376.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Patton, W., & Creed, P. A. (2001). Developmental issues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336-351.
- Patrick, H., Ryan, A. M., & Kaplan, A. (2007).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motivational beliefs, and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83-98.
- Roe, A., & Lunneborg, P. W. (1990). Personality development and career choic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pp. 68-101). San Francisco: Jossey-Bass.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 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1), 3-17.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Singer, J. D., & Willet, J. B. (2003). A framework for investigating change over time.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3-15.
- Skaalvik, E. M. (1997). Self-enhancing and self-defeating ego orientation: Relations with task and avoidance orientation, achievement, self-perceptions, and anxie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71-81.
- Song, J., Bong, M., Lee, K., & Kim, S. I. (2015).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3), 821-841.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Tuckman, B. W. (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Urduan, T., & Schoenfelder, E. (2006). Classroom effects on student motivation: Goal structures, social relationships, and competence belief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5), 331-349.
- World Economic Forum. (2016). *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 Wentzel, K. R. (1998). Social relationships and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2), 202-209.

Young, R. A., & Friesen, J.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3), 198-206.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emotion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The longitudinal changes over 4 years

Lee, Sun-Young* · Song, Ju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predictive patterns of parental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self-concept,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as perceived by learners using 4 years of data of SELS(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showed that initial values of parental academic support statistically predicted the initial valu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but predicte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as negative. Additionally, the change rate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statically predicte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parental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learners' self-concept. The initial value of learner's self concept predicted the initial value an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in a significant manner, and the rate of change of self concep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t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while also highlighting the independent predictive path of academic

* University of Seoul, Office of Educational Innovation

** Korea University, hMRI(Brain & Motivation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sjy1021@korea.ac.kr

and emotional support in the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by the learner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support and the self-concept of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the sixth grade of junior high school as well as the maturity of career consciousness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we were able to propose a practical educ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earner's career consciousness and were also able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Key Words: career maturity, parental academic support, parental emotional support, self-concept,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policy alternatives

투고일: 2017. 6. 12, 심사일: 2017. 9. 11, 심사완료일: 2017. 9. 26